



知的 소유권

학회 會長말씀 宋相現교수

『뜻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도 크게 늦지 않다』가 말을 우리는 자주 일어를 올린다.

이미 때가 지났으니 뒷북을 쳐봐야 별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착수하는 것이 옳다는 경험에서 생겨난 말이다.

25일 발표한 「한국知的소유권학회」 宋相現회장 (46·서울대교수·



법학·사건)은 「知的소유권 문제에 관한한 晩時之嘆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말한다. 지식행위 미학의 시작은 산업혁명과 인쇄술, 초에이로 네이션의 등장인간 법적인 지적 미학의 모험이다. 마틴 슈트 「텔레비전 법」은 지적재산권이다.

『아닌가 하면 판권이든 살권이지든 지적재산권부서가 유행 전파 자체 존재 전담이든 아닌지 가중된 현

“대학에 講座개설 急합니다.”

구를 계을 리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와 자료도 없던 파상공세의 1980년대로 대학하지 못하고 있어

구미 선진국에서는 특허·저작권 등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한 연구와 권리행사가 생활화된지 오래인데, 우리는 법과 대학에조차 강좌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교수·변호사 등 관련인사 50여명으로 구성된 학회에는 특허·상표·저작권·국제협력·제도·판례연구 등 6개 부분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앞으로 연간 4회 이상 회원들의 정기연구발표회도 갖기로, 국내외 저명한 사들의 초청강연회도 열기로 문체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 같 계획도 세우고 있다.

宋교수는 「작년 영의 문제가 대부분 이래 학회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올 2학기부터는 서울대에 「無體재산권법』이란 강좌가 개설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 대학에 이 강좌를 보급해 학부인구의 저변에 법학이 그치지 학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鄭鎮碩기자】